

1999. 8. 14 ~ 15 (양일간)

제 3 회 과업인 협동 수련회

주관: 대한제과협회 부산지. ! 주최: 일심회



보다 넓은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운다

일심회 주최 제3회 부산 과업인 협동 수련회

일심회(회장 남상백)가 주최하고 대한제과협회 부산지회가 주관한 제3회 부산 과업인 협동 수련회가 지난 8월 1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양산 통도 환타지아 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96년 제1회, 97년 2회에 이어 세번째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일심회 회원 및 경남 지역 기술인, 연관 업체, 회원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해 '새 천년을 준비하는 과업인' 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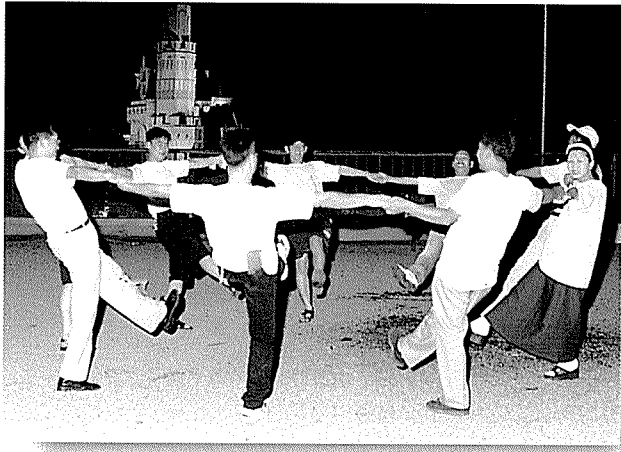
일심회(一心會)의 이번 행사는 기술인 모임의 일반적인 기술 세미나나 회원 단합대회와는 성격을 약간 달리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일심회가 지향해 온 점과 무관치 않다. 1990년 부산의 우수 기술인이 중



▲ 양도회 대한제과협회 부산지회장은 축사에서 지속적으로 부산 지역 업계 발전에 기여해온 이번 행사가 앞으로 더 활성화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 초청 특강에서 참가자들은 제품 차별화를 강조하는 시트롱과자점 이호영 대표의 강연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 놀이 한마당에서 참가자들은 서로의 화합과 단결력을 다졌다.

심이 돼 결성한 일심회는 서울 등 중앙에 의지 않고 기술이나 경영 면에서 독자적인 자립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초기에는 일심회 기술 세미나를 위주로 기술 발전에 주력했지만 연륜이 쌓이면서 부산 과업계의 발전과 회원 단합을 위해 시각을 넓히게 된 것이다.

기술·경영 자립 위해 모임 결성

이런 취지를 반영하듯 이번 행사도 제과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정립, 기술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 함양 등에 맞춰 진행됐다. 첫날 수련회장에 도착한 일행은 한마음의 뜻을 더욱 다지기 위해 통일된 유니폼으로 갈아 입고 교재를 배분받은 후 첫번째 일정으로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강사로 나선 시트통과자점 이호영 대표는 “유럽처럼 잡곡, 닛트류 등을 이용한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장시간 발효과정을 거치는 등 더욱 정성을 기울인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다음 일정으로 치러진 놀이 한마당은 말 그대로 회원의 단합과 유대 관계를 더욱 굳게 하는 자리였다. 레크레이션 강사의 주도 아래 단결력의 정도를 가늠하는 게임으로 결속력을 다졌다. 또 조별 춤 경연 등에는 회원 및 가족들이 참여해 폭소와 환호성을 자아내게 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팀워크 훈련 실시해 열띤 토론 벌이기도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밤 10시부터 실시된 팀워크 훈련이었다. 지난 2회때도 실시해 좋은 결과를 얻었고, 이미 한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팀워크 훈련에서는 업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 이번 행사를 주최한 일심회 회원들.

차례 경험했기에 팀워크 훈련은 열기 그 자체였다. 참가자들은 조별로 ‘새로운 시대의 인사 관리’, ‘전문화의 방향’, ‘새천년을 준비하는 X-마스, 연말연시의 전략’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정해진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제시하고 거기서 쏟아진 무수한 의견을 정리 종합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이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평소 생각했던 의견을 마음껏 쏟아부었다.

전날 밤늦도록 진행된 팀워크 훈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오전 8시 기상해 통도사까지 조경을 하고 외부 강사인 김상화씨를 초청해 ‘새천년을 준비하는 과업인의 자세’라는 주제로 두 번째 초청 특강을 진지하게 청경했다.

수영 및 레크레이션에 이어 전날 팀워크 훈련에서 도출된 내용을 발표하고 시상하는 것으로 이번 행사의 짧은 일정은 마무리됐다. 이번 수련회는 베이커리 업계와 자신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보다 넓은 시각을 키우려는 열정이 한데 어우러진 행사였다. [계]

<글/박중산>